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23-3

(공개)

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

-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-

2023. 10. 16.

관 계 부 처 합 동

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(요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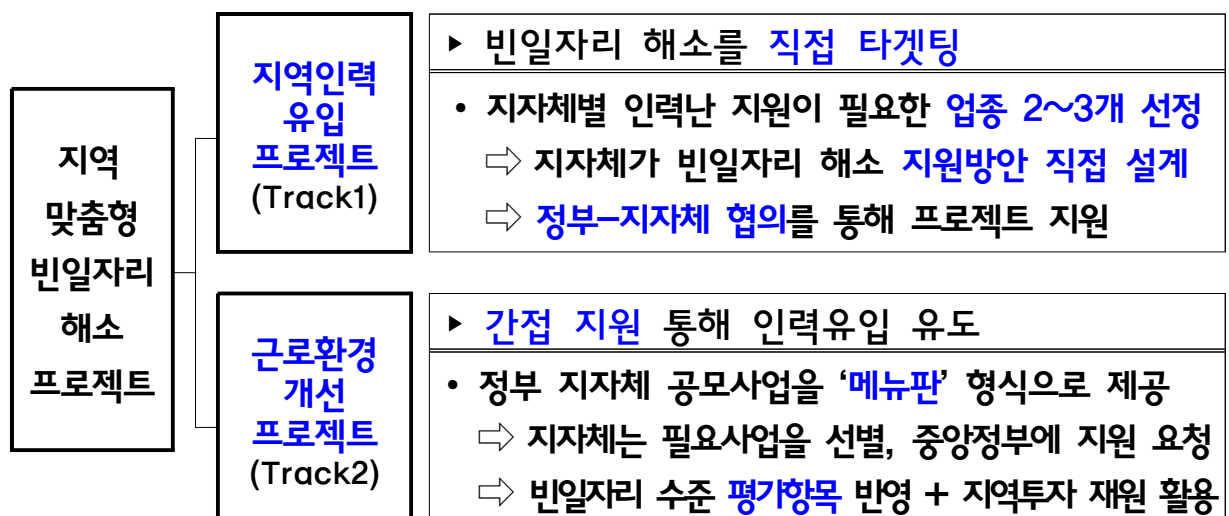
I 추진배경

-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(3월, 7월), 적극 추진 중 → 빈일자리수 감소 등 일부 성과
 - * '23.8월 빈일자리 수는 22.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.3만명 수준 감소했으나, 코로나19 이전('19년 17.8만명)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
- 일부지역은 인구유출·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력난 지속
 - * 빈일자리율(전국 1.2%)은 충북(1.7%), 경기(1.5%) 인천·충남·전북(1.4%), 광주(1.3%) 順
 - 산업구조 변화, 지방거점도시 쇠락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중심 인구유출 지속 → 향후 인력난 가중 예상
 - 일부 지역 산업현장은 노후화되어 근로환경 열악 → 청년층 중심으로 근로기피 현상 심화

II 지역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

1.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

- 각 지역별 빈일자리 여건과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마련
- 지역인력 유입(Track1), 근로환경 개선(Track2) 등 두트랙으로 추진



지역 빈일자리·구인난 해소 ⇒ 일시·구조적 노동수급 개선

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

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(Track1)



16개 지자체별 타겟 업종을 선정하여 **취업 장려** 및 **장기근속·복지 지원** 등 지역이 **직접 설계**한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



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(Track2)

- 빈일자리 해소와 관련된 정부지원 항목을 ‘**메뉴판**’ 형식으로 제공
⇒ 빈일자리 수준 **평가항목 반영** + **지역투자 자원 활용**

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

- 거점별 고용서비스 혁신
- 지역별 직업훈련·근로조건 지원 강화

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

-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
- 정주여건·사회통합 개선

	업종	프로젝트 주요 내용
충북	식료품 제조업	음성·진천 집적, 10인 미만·개별입지 기업 多, 인구유출·고령화, 출퇴근 애로 ▶ 인근 도시 유희인력 발굴·매칭 및 통근차량·숙소 지원 ▶ 근로시간단축지원금·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대 지원
	보건 복지업	충북 內 유일하게 상급 의료기관이 위치(청주), 전국 평균대비 긴 근무시간·낮은 임금 ▶ 요양보호사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▶ 요양보호사 승급제 인센티브 추가, 심리상담 지원
	반도체 부품업	정부·기업 투자 확대로 인력수요 증가, 지역 內 기술인력 부족, 낮은 임금 ▶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확대,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경기	뿌리산업	서울 소재 대기업과 임금 격차, 他 업종 대비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무강도 ▶ 노후공장 설비·장비·작업환경 개선 지원 ▶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	건설업	기능인력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감소 ▶ 현장형 건설 기능인 양성훈련 확대, 취업연계 강화 ▶ 건설현장 ‘노동안전지킴이’ 활동 실시
인천	뿌리산업	열악한 처우로 청년층 기피, 중장년층은 채용 의사 有 ▶ 기계·지방산단 환경개선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▶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강화, 뿌리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
	운수업	공항 정상화에 따른 화물 급증, 열악한 임금·정주여건, 특히 공항보안·하역 인력난 ▶ 항만·공항 운수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▶ 지게차 운전기능사 응시료, 교통비·주거비 지원
충남	뿌리산업	천안·아산 외곽 소규모 업체 多, 복지혜택 부족·출퇴근 애로 ▶ 근로자 휴가비, 통근차량 운행, 숙소 지원 ▶ 뿌리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숙박 음식업	코로나 이후 인력수요 증가, 낮은 임금으로 구인난 지속, 숙박음식업 폐업 빈번 ▶ 숙박음식업 폐업 사업주·근로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지원
	농수산업	전체 인구 및 농가인구 감소('12년 대비 '22년 △31%)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실시 ▶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조성 및 주거 지원
전북	자동차 부품업	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 中, 기술인력 부족, 낮은 임금에 따른 잦은 이·전직 ▶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및 지역대학 內 관련 학과 신설 ▶ 미래차 부품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식료품 제조업	밀키트 등 신규시장 성장, 낮은 임금에 따른 잦은 이·전직, 특히 식품·가공분야 인력난 ▶ ‘식품산업 전담 일자리 센터’ 운영 지원,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▶ 식품 생산·가공 분야 훈련 실시 및 취업장려금 지원
	농업	인구감소 및 고령화(65세 인구 비중: 23.8%)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확대 ▶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 운영 지원, 농활단체·구인애로 농가 연계

	업종	프로젝트 주요 내용
광주	뿌리산업	열악한 처우, 낮은 접근성으로 현장인력 부족·고령화 ▶ ‘중소기업 복지플랫폼’ 포인트 지원 ▶ 맞춤형 훈련 실시, 취업시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연계 지원
	자동차 부품업	친환경차로 산업전환 진행 중, 기술인력 부족 및 낮은 임금 ▶ 미래차 부품 관련 특화훈련 실시, 취업장려금 지원 ▶ 미래차 부품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전남	숙박 음식업	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으로 숙박음식업 인력수요 증가 ▶ 관광·MICE 채용연계형 훈련 확대 및 훈련수당 우대 ▶ 관광·MICE 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	조선업	대불산단 노후화(89년~)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▶ 공용이용시설(화장실 등) 개선, 작업복 세탁 등 근로조건 지원 ▶ 통근버스 운행 및 숙소 지원
	농수산업	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,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실시 및 수산계 대학생과 어가 연계 ▶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조성 및 주거 지원
강원	숙박 음식업	최근 관광수요 회복, 코로나 시기 종사자 이탈, 높은 근무 강도와 낮은 임금 ▶ 근로자 위케이션,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포인트 지원 등
	보건 복지업	대다수 시·군이 의료 취약지, 낮은 처우·열악한 정주여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확보 애로 ▶ 종합병원 레지던트 대상 일부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▶ 의과·간호대학생 장학제도 지원 등
	농업	농업인구 감소(‘10년 19만명 → ’23년 15만명) 및 고령화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지원,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지원 등
경북	자동차 부품업	‘미래차 부품 슈퍼 클러스터 상생협약’ 등으로 인력수요 증가, 신규 기술인력 부족 ▶ 산업전환 기업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지원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, 신규 입사자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
	농업	道内 농업 중심지인 북부권 8개 시·군(안동·영주·문경·의성 등)이 인구감소 지역 ▶ 경북형 워킹홀리데이 지원(일자리 체험 → 정착지원금)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지원 등
	반도체 부품업	낮은 임금·기술인력 부족,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(’23.7월)으로 수요 증가 예상 ▶ 맞춤형 훈련 및 훈련수당 우대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등
대구	뿌리산업	대부분 50인 미만(98.4%)으로 낮은 임금 및 낙후된 근무환경 ▶ ‘뿌리산업 도약센터’ 설립,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▶ 재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보건 복지업	노인돌봄 수요 급증,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로 인력 부족 ▶ 요양보호사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, 심리상담 지원 등
	반도체 부품업	5대 신사업(로봇·ABB 등)육성으로 인력수요 증가, 수도권과 임금격차로 인력유출 ▶ 채용 확정형 훈련 실시, 훈련수당 우대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
	업종	프로젝트 주요 내용
제주	숙박 음식업	중국 단체관광 재개로 인력수요 급증, 취약한 접근성(서귀포·읍·면 多) 및 낮은 임금 ▶ 근로시간 단축·유연화 지원 강화, 교통비·주거비 지원 ▶ 관광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도소매업	(면세업) 엔데믹 이후 관광 재개로 인력수요가 증가, 낮은 임금 (6차산업) 대부분 외곽 지역에 입지하여 이동·취약한 주거환경 ▶ 면세점 근로시간 단축·유연화 지원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 확대 ▶ 6차산업 인증업체 원거리 출퇴근자 대상 교통비·주거비 지원
경남	뿌리산업	읍·면 지역 공단·산단 집적 소규모 사업체 多, 낮은 임금·열악한 근무환경·출퇴근 애로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,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▶ 통근버스 운행·숙소·공용이용시설(화장실 등) 개선 지원
	숙박 음식업	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관광분야 인력 수요 급증 ▶ 채용연계형 교육 확대 및 훈련수당 우대, 주거·교통비 지원 등
	조선업	조선업 수주 증가로 인력난 지속, 낮은 임금 등으로 잦은 이·전직 ▶ 협력업체 재직자 희망공제 실시,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대전	의료정밀 과학업	전문인력 전국 단위 인력 모집하나,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낮은 임금·정주 지원 한계 ▶ 기업 R&D 조직 활용, 맞춤형 현장훈련(OJT) 확대 ▶ 他지역 거주자 주거비·교통비 지원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반도체 부품업	수도권 기업과의 임금격차로 지역기업에서 2~3년 재직 후 수도권으로 이직 多 ▶ 채용확정형 기업 현장훈련, 신규입사 청년 대상 직장적응 교육 등
울산	조선업	일자리도약센터 지원 등으로 인력난 완화되고 있으나,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 ▶ 울산·미포국가산단 환경개선, 협력업체 재직자 희망공제 실시
	뿌리산업	특화단지 확대(3→5개)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, 청년층 유출·낮은 임금 한계 ▶ ‘뿌리기업 잡매칭 센터’ 운영 지원,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세종	뿌리산업	지역 외곽 산단 內 영세기업 多, 낮은 임금·열악한 정주여건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 확대, 통근버스 및 주거비 지원 등
	전문과학 기술업	국가기관 이전 등으로 전문서비스 수요 증가, 기술인력 부족 ▶ 유연근무 지원 강화, 주거비·교통비 지원 등
부산	숙박 음식업	2030 세계박람회 등 관광 수요 증가 추세 지속 예상, 낮은 임금으로 인력난 지속 ▶ 관광·MICE 직무 체험·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▶ 관광·MICE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뿌리산업	소규모 영세 업체 多, 낮은 임금,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청년층 기피 ▶ 교통비·주거비 지원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등
	조선업	조선 3社 대규모 채용시 숙련인력 이탈,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 ▶ 공용이용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,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
*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추후 지원사업 공모·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

□ 지자체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을 「메뉴판」 형식으로 각 지자체 배포

○ 각 지자체는 메뉴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, 지원 요청
→ 정책 취지 및 빈일자리 심각도 등을 고려, 지원대상 선정·추진

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메뉴판



지역 산업단지 등 환경개선

■ 노후산단 재개발 국토부

대상 산단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* 노후산단 인프라 재개발 대상 산단을 선정하여,
도로·주차장·공원 등 확충

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식품부

기숙사 건립을 확대('23년 10개소→'24년 20개소, 누계)하고,
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시 빈일자리 수준 고려

■ 산단 아름다운 거리 산업부

대상 산단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* 지역산단 내 스마트쉼터 등 생활편의기능 추가한
'아름다운 거리' 조성 추진 중

■ 산단 청년문화센터 산업부

대상 산단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* 지역산단 내 공연장·도서관·체육시설·편의점 등과 함께
업무지원 기능이 융합된 센터 구축

■ 공장리뉴얼 산업부

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장리뉴얼 지원을 신설('24년 150개)하고, 대상 기업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

지역기업 근로조건 개선

■ 환경산업체 근로환경개선 환경부

환경분야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시
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(현재 5개 항목)에 반영

■ 외식업체육성자금 농식품부

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장별 컨설팅 및
노후가스·환기 설비 교체 및 개보수 지원,
대상 기업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 반영

■ 스마트공장 중기부

스마트공장 보급 대상을 '24년 1,000개로
확대('23년 783개)하고, 스마트 공장 대상 기업
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■ 인재 연수원 확충 중기부

중소기업 근로자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
복합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, 교육과정 개설시
지역별 빈일자리 수준을 반영

■ 상생협력 공제사업 중기부

중소기업 공제사업에 대해 지자체, 대기업 등이 기업지원금을 납입하고, 대상 기업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 반영



지역투자 자원 활용

■ 지역소멸기금 행안부

지자체 기금사업과 지역의 빈일자리 해소
연관사업 연계 강화

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기재부

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빈일자리
해소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화 지원
(예: 컨설팅, 펀드 신청 안내 등)

2.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

□ 인력 매칭 효율화를 위해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, 지역별 직업훈련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지속 강화

① (고용서비스) 빈일자리 핵심기업 5,000개 선정하여 1:1 인력난 지원*,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단위 협업모델 통해 인력매칭 효율화

* 전국 고용센터 통해 신속취업지원TF,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본격 지원

② (직업훈련) '24년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 2만명 확대(3→5만명), 대·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20개 신설* 추진

* 첨단산업분야 15개 확대, 산업전환 분야 5개 확대

③ (근로조건 지원) 유연근무 확산 지원을 강화하고, 원청이 출연하여 제2·3차 협력사 복지를 지원하는 '상생연대 형성지원 프로그램' 신설

* (상생연대 형성지원 : 2·3차 협력사 지원) 원청 노사 출연 시 매칭 보조(총 50억원)

3.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

□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취업·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체계 개선 및 쿼터확대를 추진하고,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병행

① (지역정주 유도)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, 거주에서 영주까지 이어지는 우수인력 특화 비자체계 구축

- 해외 유학생이 국내대학 졸업 후 빈일자리 핵심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 이수시 체류자격 변경(E-7) 허용 추진

② (외국인력 총량 확대)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단순외국인력(E-9), 계절근로자(E-8) 등 차년도 쿼터 확대 검토하고, 지역배정 유도

③ (사회통합 강화) 단순외국인력(E-9)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시, 공공기숙사 적극 도입 지자체의 사업장에 선발 가점 부여

- 외국인력의 원활한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어, 한국문화 교육 등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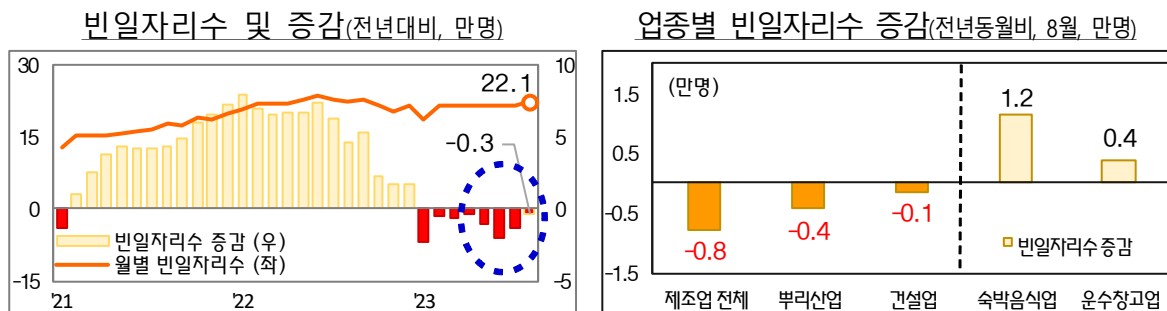
□ 동 안건을 바탕으로 공모절차 등 거쳐 지자체별 예산배분·사업추진
→ 향후 일자리TF 통해 추진실적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 추진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특징	3
III. 지역별 빈일자리 주요 원인분석	4
IV. 지역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	5
1.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	6
(1)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(Track1)	7
(2)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(Track2)	24
2.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	25
3.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	26
V. 향후 추진계획	27

I. 추진배경

- 최근 고용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
→ 단,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 지속 호소
 - 코로나19 이후 수요·공급 미스매치 등 일시적 요인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 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
 -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(3월, 7월), 적극 추진 중 → 빈일자리수 감소 등 일부 성과
 - '23.8월 빈일자리수는 22.1만명으로 전년동월비 0.3만명 감소
 - 뿌리산업 등 제조업 중심으로 빈일자리수 증가 둔화 추세
 - 다만, 숙박음식 등 일부업종에서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한편, 제도개선·정책추진 시차* 등으로 인해 빈일자리 해소 지연
- * 재외동포(F-4) 음식점업 취업허용('23.5~), 「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」 발표(8.30일)



- 일부지역은 인구유출·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력난 심화
 - 일부 인구유출 지역의 경우 뿌리산업·농업 등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 요구
 - 각 지자체도 일자리정책 세부계획 마련 및 자체사업 추진 등 통해 노력 중이나, 빈일자리에 타겟팅한 체계적 해소노력 부족

➡ 지역별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할수 있도록 인력난이 큰 부문 중심으로
지자체 주도 + 중앙정부 지원의 종합적 해소방안 마련 필요

※ 「제1,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(3월, 7월)」 주요 추진실적

□ [업종별 지원] 업종별 인력유입·매칭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 중

조선업 [산업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조선업 상생협약 패키지 지원사업」 정상 추진(19개 중 18개 과제 정상추진) ▶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으로 1,793명(1,716명 채용 연계) 양성(상반기) ▶ '조선업 별도 쿼터' 5천명 신설(4월) → 3,834명(E-9) 입국(8월말)
뿌리산업 [산업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일하기 좋은 뿌리기업' 최종선정(9개社)(10월) ▶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추가 선정 추진(9.26~)
물류운송업 [국토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외버스·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(~'23.12월) ▶ 택배업·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(H-2 한정)에 E-9 고용 허용(9월) ▶ 「버스·터미널 서비스 안정화」 방안 발표(8월)
보건복지업 [복지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사업 추진 중('23.8월~10월) ▶ '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' 마련 중(10월 발표 목표)
음식점업 [농식품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푸드테크 펀드 투자조합 결성(7.18) 및 투자기업 선정(7.24~) ▶ 「푸드테크 산업 육성법」 제정 추진 중(상임위 상정, 9월)
농업 [농식품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농촌인력증개 연인원 245.9만명 공급(9월말, 전년동기비 21% ↑) ▶ 외국인력 3.6만명(고용허가 1.1만, 계절근로 2.5만) 입국(9월말, 전년동기비 115% ↑)
건설 (해외, 국내) [국토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소·중견기업 대상 해외건설 현장훈련(om) 청년 선정(1차: 28명, 2차: 32명) ▶ 해외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민영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근거(7.31, 「주택공급규칙」 개정) 및 추천기준(9.25, 해외건설협회 내부 규정 신설) 마련 ▶ 외국인력(E-9) 고용제한 차분단위(사업주→당해 사업장), 차분기간(2년→1년) 변경(6.28)
해운 [해수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(월 300→500만원) 발표(7.27) ▶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노-사 공동선언문 발표(9.25) ▶ 해사高·오션폴리텍 교육생 운항실습 진행중('23.2~'24.1, 실습선 4척, 총 713명)
수산 [해수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블루푸드테크 교육과정 개설 위한 대학교 참여희망 의견 수렴(9.19~10.18) ▶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및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선(9.1) ▶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한 「어선안전조업법」 개정안 발의(8.16)
자원순환 [환경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선별장 작업환경 개선 위한 현대화 추진(16개소, ~'23.12월) ▶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사업장 선정(8월, 10개社)·기업 홍보관 운영(10월) ▶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, 공공선별장 현대화(39개소) 확대('24년 예산안 반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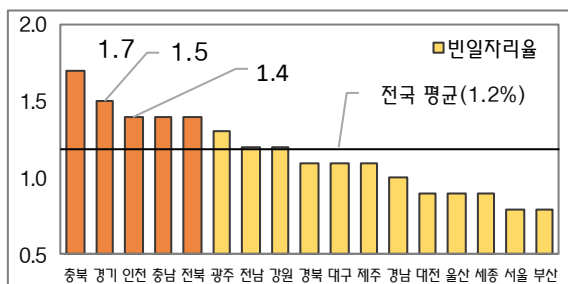
□ [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] 고용서비스 확충,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병행

근로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^(가칭) 청년성장프로젝트 정부안 반영(281억원, 10개 지자체) ▶ 상생협력법 개정·시행(10.4)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·현장안착 추진 ▶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확대('22. 273 → '23.10월 327개사) ▶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제도 법적 근거 마련(9월, 「중소기업인력법」 개정)
고용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구직자·기업 도약보장 패키지' 운영센터 전국 확대(8.21, 48개소) ▶ 조선업 훈련수당 우대 지원(8.10 기준 1,748명), ▶ 都-農 상생일자리 연계(65,271명 연계, 상용직 1,643명 취업)
외국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E-7-4 비자 허용 쿼터 확대(5,000명→35,000명) 및 점수제 요건 간소화(9월) ▶ 유학생 졸업 후 산업계 취업연계 확대 계획 발표(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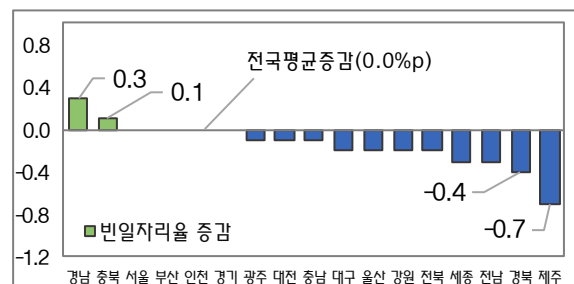
Ⅱ.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특징

- 빈일자리율(전국 1.2%)은 충북(1.7%)이 가장 높고, 경기(1.5%), 인천·충남·전북(1.4%), 광주(1.3%), 전남·강원(1.2%) 순
- (비수도권) 충북·충남은 높은 빈일자리율 지속, 경남·충북은 최근 제조업 중심으로 빈일자리율이 빠르게 증가
- (수도권) 서울 빈일자리율은 0.8%에 불과, 단 경기·인천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뿌리·영세기업 등 중심으로 인력난 지속

전국 빈일자리율 비교(%)



빈일자리율 증감(전년동월비, %p)



- 빈일자리수(22.1만개)는 비수도권+경기지역에 집중(약 77%)
- 대부분 지역(12개)에서 제조업의 빈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, 경기·경남·충북·충남 지역 중심으로 제조업 빈일자리 다수
 - * 제조업 빈일자리수(명) : (경기) 24,202 (경남) 4,514 (충북) 4,396 (충남) 4,396
- 광주·대구는 택시·버스 등 운수창고업, 충북은 보건복지업 인력난 호소, 부산·전남은 숙박음식(관광·MICE*) 중심 빈일자리 ↑
 - * 여행업, 호텔업, 면세점업, 전시·국제회의업, 유원시설

지역내 업종별 빈일자리 비중 순위('23.8월, %)

	전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1위	제조 (26.8%)	운수창고 (22.0%)	제조 (27.3%)	제조 (22.8%)	제조 (31.9%)	운수창고 (28.1%)	제조 (13.7%)	제조 (42.0%)	제조 (27.5%)
2위	숙박음식 (14.4%)	도소매 (13.9%)	숙박음식 (16.0%)	운수창고 (20.1%)	운수창고 (16.2%)	제조 (16.5%)	보건복지 (12.7%)	도소매 (10.7%)	보건복지 (12.3%)
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1위	제조 (34.1%)	숙박음식 (27.9%)	제조 (40.6%)	제조 (38.3%)	제조 (30.2%)	숙박음식 (21.6%)	제조 (38.9%)	제조 (42.2%)	도소매 (24.2%)
2위	숙박음식 (18.2%)	보건복지 (19.4%)	보건복지 (13.2%)	보건복지 (12.8%)	보건복지 (16.0%)	보건복지 (16.8%)	도소매 (16.4%)	숙박음식 (15.9%)	숙박음식 (17.3%)

Ⅲ. 지역별 빈일자리 주요 원인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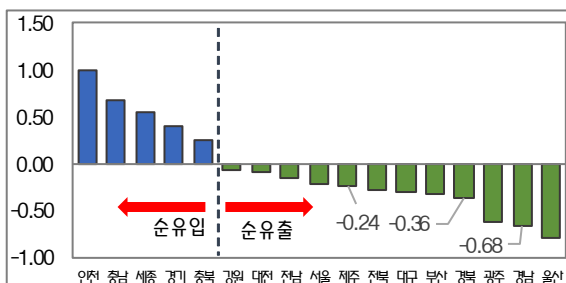
□ (일시적 요인) 일상회복 등에 따라 인력수요 급증, but 공급은 지연

-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지방 인력수요 확대
 - 부산·전남 등은 국제행사,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숙박음식업 (관광·MICE) 분야 등에서 빈일자리가 빠르게 증가
 - * 부산 숙박음식업 빈일자리수(명): ('19)537 ('20)153 ('21)370 ('22)940 **(23.1~8)2,212**
 - 경남·울산 등은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으로 인력난 지속 호소
- 지역별로 외국인력 공급이 증가 중이나,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
 - * 취업가능(E-1~10, H-1,2, C-4) 외국인력(만명): **(19)60.0** ('20)45.3 ('21)40.7 ('22)45.1 **(23.8)51.4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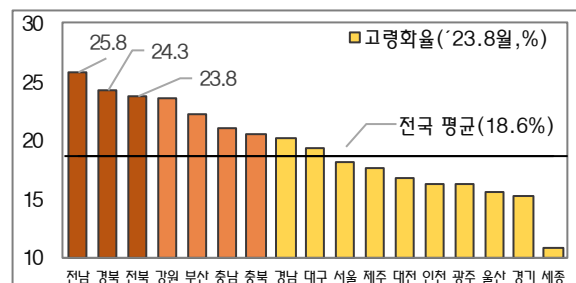
□ (구조적 요인) 지방은 인구유출·고령화 심각 → 지방소재 기업 근로 기피

- ① (인구유출) 산업구조 변화, 지방거점도시 쇠락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중심 인구유출 지속 → 향후 인력난 가중 예상
 - 특히, 지역의 미흡한 정주여건과 부족한 복지·문화시설, 지방 산단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재확보 어려움 존재
 - *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: ('07~'11) 6.0% → ('12~'16) 4.7% → ('17~'21) 1.0%
- ② (근로환경) 일부 지역 산업현장은 노후화되어 근로환경이 열악 →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기피 현상 심화
 - * 인력난 근본 원인(IBK 경제연구소, '23.7): 임금/복지수준 개선 등 자구노력 미흡(46.0%)
- ③ (고령화)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향후 인력난 심화 가능성 ↑
 - * 빈일자리율 순위('23.8월): (전남)7위, (경북)9위, (전북)3위, (강원)7위

지역별 인구 순이동률(백명당 이동자수) 비교('23.1~8월 평균, %)



고령화율 비교(%)



IV. 지역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

지역 빈일자리·구인난 해소 ⇒ 일시·구조적 노동수급 개선

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

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(Track1)



16개 지자체별 타겟 업종을 선정하여 **취업 장려** 및 **장기근속·복지 지원** 등 지역이 **직접 설계**한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



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(Track2)

- 빈일자리 해소와 관련된 정부지원 항목을 ‘**메뉴판**’ 형식으로 제공
⇒ 빈일자리 수준 **평가항목 반영** + **지역투자 자원 활용**

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

- 거점별 고용서비스 혁신
- 지역별 직업훈련·근로조건 지원 강화

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

-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
- 정주여건·사회통합 개선

1.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

- ◇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**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** 마련
- ◇ **지역인력 유입**(Track1), **근로환경 개선**(Track2) 등 투트랙으로 추진



- 1 **(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)** 지자체 별로 빈일자리 핵심업종 선별
→ 해당 업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빈일자리 프로젝트 지원

- **(업종선정)** 빈일자리 규모,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빈일자리 해소 지원필요 업종을 지역별로 2~3개 선정

- **(지원내용)** 선정된 업종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지원방안 설계*
→ 정부-지자체 협의 통해 조정, 지자체 지원사업 활용하여 추진

* 빈일자리 해소와 직접 관련된 '소득·고용·복지' 중심 지원과제 구체화

- 2 **(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)** 빈일자리 해소와 관련된 정부지원 항목을 '**메뉴판**' 형식으로 제공 → 인력난 심각 지역·업종 우대지원

- 각 지자체는 메뉴판 사업 중 필요한 사업 선별, 정부에 지원 요청
→ 빈일자리 수준 및 증가속도 등을 공모사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+ 관련사업 추진시 지역투자 재원 활용

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(Track1)

	업종	프로젝트 주요 내용
충북	식품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근 도시 유휴인력 발굴·매칭 및 통근차량·숙소 지원 ▶ 근로시간단축지원금·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대 지원
	보건복지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요양보호사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▶ 요양보호사 승급제 인센티브 추가, 심리상담 지원
	반도체부품업	▶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확대,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경기	뿌리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후공장 설비·장비·작업환경 개선 지원 ▶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	건설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현장형 건설 기능인 양성훈련 확대, 취업연계 강화 ▶ 건설현장 ‘노동안전지킴이’ 활동 실시
인천	뿌리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계·지방산단 환경개선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▶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강화, 뿌리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
	운수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항만·공항 운수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▶ 지게차 운전기능사 응시료, 교통비·주거비 지원
충남	뿌리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근로자 휴가비, 통근차량 운행, 숙소 지원 ▶ 뿌리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숙박음식업	▶ 숙박음식업 폐업 사업주·근로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지원
	농수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실시 ▶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조성 및 주거 지원
전북	자동차부품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및 지역대학 內 관련 학과 신설 ▶ 미래차 부품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식품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‘식품산업 전담 일자리 센터’ 운영 지원,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▶ 식품 생산·가공 분야 훈련 실시 및 취업장려금 지원
	농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확대 ▶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 운영 지원, 농활단체-구인 애로 농가 연계
광주	뿌리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‘중소기업 복지플랫폼’ 포인트 지원 ▶ 맞춤형 훈련 실시, 취업시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연계 지원
	자동차부품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래차 부품 관련 특화훈련 실시, 취업장려금 지원 ▶ 미래차 부품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전남	숙박음식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광·MICE 채용연계형 훈련 확대 및 훈련수당 우대 ▶ 관광·MICE 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	조선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용이용시설(화장실 등) 개선, 작업복 세탁 등 근로조건 지원 ▶ 통근버스 운행 및 숙소 지원
	농수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실시 및 수산계 대학생과 어가 연계 ▶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조성 및 주거 지원
강원	숙박음식업	▶ 근로자 위케이션,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포인트 지원 등
	보건복지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종합병원 레지던트 대상 일부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▶ 의과·간호대학생 장학제도 지원 등
	농업	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지원,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지원 등

	업종	프로젝트 주요 내용
경북	자동차부품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전환 기업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지원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, 신규 입사자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
	농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북형 워킹홀리데이 지원(일자리 체험 → 정착지원금) ▶ 都-農 인력매칭 사업 지원 등
	반도체부품업	▶ 맞춤형 훈련 및 훈련수당 우대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등
대구	뿌리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‘뿌리산업 도약센터’ 설립,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▶ 재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보건복지업	▶ 요양보호사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, 심리상담 지원 등
	반도체부품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채용 확정형 훈련 실시, 훈련수당 우대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제주	숙박음식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근로시간 단축·유연화 지원 강화, 교통비·주거비 지원 ▶ 관광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도소매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면세점 근로시간 단축·유연화 지원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 확대 ▶ 6차산업 인증업체 원거리 출퇴근자 대상 교통비·주거비 지원
경남	뿌리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,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▶ 통근버스 운행·숙소·공용이용시설(화장실 등) 개선 지원
	숙박음식업	▶ 채용연계형 교육 확대 및 훈련수당 우대, 주거·교통비 지원 등
	조선업	▶ 협력업체 재직자 희망공제 실시,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대전	의료정밀과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 R&D 조직 활용, 맞춤형 현장훈련(OJT) 확대 ▶ he지역 거주자 주거비·교통비 지원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반도체부품업	▶ 채용확정형 기업 현장훈련, 신규입사 청년 대상 직장적응 교육 등
울산	조선업	▶ 울산·미포국가산단 환경개선, 협력업체 재직자 희망공제 실시
	뿌리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‘뿌리기업 잡매칭 센터’ 운영 지원,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세종	뿌리산업	▶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 확대, 통근버스 및 주거비 지원 등
	전문과학기술	▶ 유연근무 지원 강화, 주거비·교통비 지원 등
부산	숙박음식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광·MICE 직무 체험·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▶ 관광·MICE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
	뿌리산업	▶ 교통비·주거비 지원,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·기간 확대 등
	조선업	▶ 공용이용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,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

*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추후 지원사업 공모·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

충청북도

지원업종 식료품 제조업 · 보건복지업 · 반도체 부품업

1 식료품 제조업: <주요대상> 만두·면류·간편식 등 소규모 식료품 생산·가공업체

❖ 음성·진천(47.5%)에 집중되어 있으며, 10인 미만·개별입지 기업 多, 인구유출·고령화로 노동력 부족, 출퇴근 애로 및 근로자 편의시설 부족

-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, 지역사회 리더 등 활용한 인근 도시 중장년·여성 등 **유휴인력** 발굴·연계, **통근 차량·숙소** 등 지원*
* 개별입지 기업 대상 기업별 통근 차량 임차비 지원, 기숙사 임차비·월세 지원 등
- 여성인력 유입 촉진 위해 **근로시간 단축·유연화** 지원 우대*
* (현행)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→ (우대) 월 60만원, 교통비(월 10만원)
- 장년 신규 채용·고용 유지 식료품 기업에 **고용장려금** 우대 지원
* 고령자고용지원금: (현행) 만60세 이상, 분기 30만원 → (우대) 만55세 이상, 월 80만원
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: (현행) 월 30만원 → (우대) 월 80만원

2 보건복지업: <주요대상>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, 특히 노인요양시설

❖ 충북 內 유일하게 상급 의료기관이 위치한 **청주**(50.6%)에 집중, 노인돌봄 수요가 급증*하고 있으나, 전국대비 긴 근무시간·낮은 임금
* 장기요양기관: ('18) 33개→('21) 439개, 수용인원: ('18) 6,102명→('21) 9,840명

- 노인요양시설 신규채용 정규직 요양보호사 **빈일자리 취업 지원금** 지원*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
* 지원대상: 만 35세 이상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- '요양보호사 승급제' 참여시설 대상 **인센티브** 추가 지원*
* (선임보호사) 월 15만원 → 월 25만원, (참여시설) 미지급 → 월 10만원
- 감정노동·돌보던 이의 사망 등으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대상 **전문 심리상담 서비스** 제공 지원

3 반도체 부품: <주요대상> 소재 생산·패키징·테스팅 등 소규모 소부장 업체

❖ 지역 수출의 약 35%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, 정부·기업 투자 확대*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**기술인력 부족** 및 **낮은 임금**으로 구인난
* 「충북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」 발표('22.10월), 반도체·IT 소부장 지원센터 건립 추진('23.4월) 등

- 숙련인력 확보 위해 '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**인력양성 사업**' 확대*, 정년퇴직자의 **계속고용 지원 강화**(계속고용장려금 월 80만원)
* (현행) 반도체 과정 → (변경) 전기·전자·통신 등 반도체 기업 취업자 多 과정
- 현행 '충북형 반도체 **일자리도약장려금**' 지원기준 개선*
* (현행) 대상 근로자의 월급여 최저임금 100% 이상 → (변경) 120% 이상

1 **부리산업**: <주요대상> 기계장비·금속가공·3D프린트 제조 소규모 뿌리기업

❖ 서울 소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, 他 업종 대비 **열악한 근로환경** 및 **근무강도** 등으로 청년층 취업 기피, 만성적 구인난 경험

- **노후공장 설비·장비 개선, 노동·작업 환경 개선***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노동강도 완화 및 유해환경 개선 도모

* 기반시설(도로포장, 상하수도 등), 노동환경(기숙사, 식당, 화장실 등), 작업환경(작업공간 개보수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등) 개선 지원

- **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 대상 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*

* (현행) 만 15~34세, 최저임금 100% 이상, 월 60만원·최대 1년(2년 근속시 480만원) (우대) 전 연령, 최저임금 120% 이상, 월 100만원·최대 1년

-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 수요 **맞춤형 인력양성 교육** 실시, **훈련수당 우대** 등을 통해 신규 인력유입 유도

2 **건설업**: <주요대상> 종합전문 건설 업체

❖ 경기도 건설업 빈일자리 비중은 전국 31.6%로 건설업 종사자 비중(18.2%)에 비해 높은 상황, **기능인력 고령화** 및 **신규 진입 인력** 감소로 구인난

-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'**노동안전지킴이**' 활동 실시, 산업재해 발생 우려 사업장 대상 **상시적인 점검·지도** 실시

- 현장형 건설 기능인 **양성 훈련 확대***, 전문 직업 상담사와의 연계를 통해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**취업 연계** 강화

*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: ('23)년 720명 → ('24년) 750명
스마트 건설기술(건설기술과 첨단기술 융복합) 기능인력 양성사업 신설(8.5억원)

1 **뿌리산업**: <주요대상> 표면처리·정밀가공·금형 분야 소규모 뿌리기업

❖ **열악한 처우**로 청년층이 기피하나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(50.2%) **처우개선 노력 부족**, 뿌리기업 조사결과 중장년층에 대한 채용 의사 확인*

* 조사기업(110개소)의 80% 이상이 인력난 경험, 50% 이상이 중장년층 채용의사 有

- 뿌리기업 중장년 정규직 신규채용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지원* 및 장년 신규채용·고용유지 기업에 **고용장려금** 지원 강화**

* 지원대상: 만 35세 이상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** 고령자고용지원금·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 지원수준 상향

- ‘**뿌리 일자리지원센터**’ 설립, 뿌리산업 **특화 고용서비스** 제공 지원

* 뿌리기업 취업 컨설팅,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, 뿌리기업 고용·환경 조사 등

- 뿌리기업 근로자 **숙소**(월세 등) 및 **작업복 세탁** 지원, 뿌리기업이 밀집한 인천 **기계산단·지방산단 환경개선*** 등 생활편의 개선

* 주차장 확충, 공원·쉼터 조성 등(~'28년)

2 **운수업**: <주요대상> 인천공항 및 인천항만 입주 운송서비스 기업

❖ 공항 정상화,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른 특송화물 급증*으로 구인수요 증가, **낮은 임금 및 부족한 정주여건**으로 **공항보안·하역** 등 직무에서 인력수급 애로

* ('22.上) 602만건 → ('23.上) 742만건(23% 상승)

- 장기교육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공항 보안검색요원 **사전교육***시 **훈련수당** 우대

* 「경비업법」, 「항공보안법」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업무 수행 이전에 받는 교육

- 장년 신규채용 인천항만 운송서비스업 기업에 **고용지원금** 우대 지원* 및 지게차운전기능사 **면허과정 응시료** 지원

* 지원대상: 만 55세 이상, 지원수준: 월 80만원, 최대 1년

- 공항·항만 운송서비스 기업 정규직 입사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확대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

* 지원대상: 만 35세 이상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- 공항·항만 內 운송서비스업 종사자 **교통비·주거비** 지원

* 교통비: 월 10만원, 최대 1년, 주거비: 월세,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

1 부리산업: <주요대상> 자동차·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기반인 기계·장비업체

- ❖ 대부분 천안·아산 외곽(69.8%)에 위치한 소규모 업체로 근로자 복지혜택 부족·출퇴근 애로, 청년층 취업 기피로 근로자 고령화* 및 인력난 지속
* (30대 미만) 8%, (30대) 21%, (40대) 34%, (50대) 27%, (60대 이상) 10%

- 뿌리기업 중장년(만 40세 이상) 정규직 입사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지원* 및 신규채용 뿌리기업 **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** 지원

* 대상기업: 기계·장비업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** 지원대상: 만 40세 이상, 최저임금 120% 이상 지원수준: 월 80만원, 최대 1년

- **통근차량** 지원* 및 타지역 유입 근로자 대상 **숙소** 지원(월세 등)

* 산단입지 기업: 통근버스 운행 지원, 개별입지 기업: 통근차량 임차비 지원

- 뿌리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**근로자 휴가비** 우대 지원(기업부담분 지원) 및 **작업복 세탁**(수거 → 세탁 → 배송) 지원

2 숙박음식업: <주요대상> 숙박음식업 폐업·폐업예정 소상공인

- ❖ 코로나 이후 **대면서비스 회복세**가 지속되면서 숙박음식업 인력수요 증가, 낮은 임금 등으로 구인난이 지속되는 한편, 숙박음식업 폐업 빈번(전체의 18.8%)

- 숙박음식업 폐업(예정) 사업장 사업주·근로자 대상 동종 업종 재취업시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지원

- 음식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전담자를 통한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지원

3 농수산업: <주요대상> 공주·청양·보령·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농어가

- ❖ 충남은 농산물 생산량·재배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나, 전체 **인구** 및 **농가인구 감소**(‘12년 대비 ’22년 △ 31%)로 농어촌지역 인력난 심화

- ‘**농촌인력중개센터**’, 「**都-農 상생일자리 사업**」을 통해 도시 유희인력 등을 일손 부족 농가로 연계, 교통비·숙박비 등 지원

- **어촌 지역 생활서비스 시설**(마트 등 수익시설과 복지시설 융합시설) 조성, **주거지원**(빈집 리모델링 등) 등을 통해 청년층 유입 유도

전라북도

지원업종 자동차부품업·식료품 제조업·농업

① **자동차 부품:** <주요대상> 이차전지·센서 등 미래차 부품 전후방업체

❖ 군산 전기차·완주 수소차·새만금 자율상용차 등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 중, **기술인력 부족**, 낮은 임금에 따른 **잦은 이·전직**으로 관련기업 인력난

- 미래차 부품기업 구직자 대상 기업맞춤형 **현장직무교육(OJT)** 실시, 지역대학 內 이차전지 등 **관련 학과 신설** 등 기술인력 양성
- 미래차 부품기업이 정규직 채용시 **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* 지원
* 지원요건: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80만원, 최대 1년
- 미래차 부품기업 정규직 입사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우대 지원*을 통한 장기 근속 유도
* 지원대상: 만 35세 이상, 지원수준: 취업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② **식료품 제조업:** <주요대상> '20년 대비 9.2% 증가 소규모 식료품 제조업체

❖ 밀키트 등 신규시장 성장으로 기업·인력수요 증가, 낮은 임금, 열악한 근무 **환경**으로 인한 잦은 이·전직으로 상시적 구인난*, 특히 생산·가공 인력부족
* 식료품 제조업 인력부족률: 2.3%, 일반제조업 인력부족률: 1.7%

- '식품산업 전담 **일자리센터**' 운영 지원, 지역 커뮤니티·유관기관 간 **협력체계*** 구축 통한 유휴인력 발굴 및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
* 지역 커뮤니티: 이장단·부녀회장단 등, 유관기관: 고용센터·직업계고·지역대학 등
- 지역대학·직업계고와 협업하여 식품산업 취업 희망자 대상 **생산·가공 분야 훈련** 실시, 식품기업 취업시 **취업장려금** 지원
- 식품기업이 정규직 채용시 **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 및 신규 입사자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지원
- **휴게공간** 확보, 화장실·샤워실 등 **공동이용시설** 개선 지원

③ **농업:** <주요대상> 고창·장수·임실·무주·부안 등 인구감소지역 농가

❖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**인구감소** 및 **고령화**(65세 인구 비중: 23.8%)로 노동력 부족, 인구감소지역 內 노동력만으로는 인력수급 곤란

- '농촌인력중개센터', 「**都-農 상생일자리 사업**」을 통해 도시 유휴인력 등을 일손 부족 농가로 연계, 교통비·숙박비 등 지원
- **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** 운영 지원 및 인근 도시 **봉사단체·농활단체** 등을 구인애로 농가와 연계

① **뿌리산업**: <주요대상> 금형·용접·표면처리 소규모 영세 뿌리기업

❖ 주력산업인 배터리·자동차 등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산업이나, **열악한 처우** 및 **낮은 접근성**으로 인해 현장 근무 인력 고령화·부족

- 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 대상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우대 지원 및 ‘**중소기업 복지 플랫폼**’ 이용 포인트 지원
 - * 지원대상: 만 35세 이상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-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 실시, **훈련수당** 지원 강화 및 뿌리기업 취업시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연계 지원
- **통근버스** 운행 및 타지역 유입 근로자 **숙소** 지원(월세 등)

② **자동차 부품**: <주요대상> 전기차·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자동차 부품 업체

❖ 지역 제조업의 43.1%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등에 따라 산업이 전환되고 있으나, **기술인력·청년층 노동력 부족**, **낮은 임금**으로 구인난

- 기업 현장 수요 기반 미래차 부품 관련 **특화훈련** 실시 및 **훈련수당 우대** 지원, 관련 기업 취업시 **취업장려금** 지원
- 장년 신규 채용·고용 유지 미래차 부품기업에 **고용장려금 우대***, 타지역 근로자 대상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력 확보
 - * 지원대상: 만 55세 이상(고령자 고용지원금), 만 60세 이상(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)
지원수준: 월 80만원, 최대 1년
- 미래차 부품기업 정규직 입사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지원
 - * 지원대상: 만 35세 이상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전라남도

지원업종 숙박음식업·조선업·농수산업

1 숙박음식업: <주요대상>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·MICE 사업체

❖ 코로나 이후 **관광 회복**, 전국체전(10월)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(4~10월) 등 관광수요 증가로 빈일자리 급증('23.1월 591명→8월 1,668명)

- 관광·MICE* 구직자 대상 기업 수요 맞춤형 **채용 연계형 교육** 확대, **훈련수당 우대** 등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 유도

* 여행업, 호텔업, 면세점업, 전시·국제회의업, 유원시설

- 지역대학 관련 전공자 등 청년층 정규직 입사자 대상 **관광·MICE 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우대 지원

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- 정규직 채용 관광·MICE 기업에 **일자리 도약 장려금** 우대 지원

* 지원요건: 만 40세 이상,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년

2 조선업: <주요대상> 대불산단 입주 조선업 사외협력사

❖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('23.3월) 추진 이후 조선업 구인난 완화 추세이나, 대불산단 노후화(89년~)로 **열악한 근무환경** 등에 따라 인력난 지속

- 하계·동계 **휴게공간** 확보 지원, 화장실·샤워실 등 **공동이용 시설** 개선 및 **작업복 세탁**(수거→세탁→배송) 지원

- **통근버스** 운행 지원 및 타지역 유입 근로자 **숙소** 지원(월세 등)

- 원청 연수원을 통한 채용예정자 훈련 및 **훈련수당** 우대 대상을 現 사내협력사→**사외협력사** 채용예정자·취업희망자까지 확대

3 농수산업: <주요대상> 인력난 17개 '군' 내 농어가 및 농수산물 가공 기업

❖ 대부분 '군'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**인구감소***, **고령화**로 원활한 인력공급 한계, 농어촌지역 상시적 인력난 경험

* 전라남도 內 17개 군 중 강진·고흥·곡성 등 16개 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

- '농촌인력중개센터', 「**都-農 상생일자리 사업**」을 통해 도시 유희인력 등을 농가와 연계*, **지역 수산계 대학생**과 어가 연계**

* 교통비·숙박비·식비·상해보험료·사전교육 지원

** 교통비·인센티브(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) 지원

- **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** 운영 지원 및 인근 도시 **봉사단체·농활 단체** 등을 구인애로 농가와 연계, **교통비·숙박비·인센티브*** 지원

* 지역 문화·관광레저 시설 이용료(지방비)

- **어촌 지역 생활서비스 시설**(마트 등 수익시설과 복지시설 융합시설) 조성, **주거지원**(빈집 리모델링 등) 등을 통해 청년층 유입 유도

강원도

지원업종 숙박음식업·보건복지업·농업

① 숙박음식업: <주요대상> 호텔·여행사·자연공원 등 중소 관광업체

❖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는 회복되고 있으나, 코로나 시기 **관광업 종사자 이탈, 높은 근무 강도 및 낮은 임금***으로 인력 확보 곤란, 빈일자리 지속

*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: 전체 사업 307만원, 관광업 238만원

- 정규직 채용 관광업 기업에 **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
* 지원요건: 만 49세 미만,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80만원, 최대 1년
- 관광업 기업 **재직자 복지서비스** 지원 실시, '**중소기업 복지 플랫폼**' 이용 포인트 및 **위케이션 프로그램*** 지원
* 집·사무실이 아닌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근무제도

② 보건복지업: <주요대상> 공공의료원,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

❖ 대다수 시·군(18개 중 15개)이 의료 취약지로 적절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움, **낮은 처우, 열악한 정주여건** 등으로 인해 필수 의료인력 확보 애로

* 인구 천명당 의사 수: 1.81명(전국 7위, 충원필요인원 104명), 간호사 수: 4.50명(전국 11위)

- 종합병원 레지던트 대상 일부 진료과 **전공의 육성수당** 지원
* 진료과: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지원수준: 월 100만원
- 공공의료원 청년 간호사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우대 지원
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- **공중보건장학제도*** 운영 지원,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유도
* 장학금 지원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에 근무(최소 2년 ~ 최대 5년)

③ 농업: <주요대상> 고랭지 배추·감자·옥수수 등 지역 특화작물 농가

❖ 지역 주요 농산물의 연간 농업인력 수요는 약 95만명이나, 농업인구 감소('10년 19만명 → '23년 15만명) 및 고령화로 농업 현장 만성적 인력난

- '**농촌인력중개센터**', '**都-農 상생일자리 사업**'을 통해 도시 유희인력 등을 일손 부족 농가로 연계, 교통비·숙박비 등 지원
- **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** 운영 및 인근 도시 **봉사단체·농활단체** 등을 구인애로 농가와 연계 지원

1 자동차 부품: <주요대상> 전기차·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부품 업체

❖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‘미래차 부품 슈퍼 클러스터 상생협약(’22)’ 등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**신규 기술인력 유입 부족** 등으로 인력난

- 미래차 부품기업 입직자 대상 맞춤형 **특화교육** 실시 및 **훈련수당** 우대, 재직자 대상 OJT 기반 **직무전환 훈련*** 지원

* 지원대상: 산업전환기업, 지원내용: 직무분석, 훈련프로그램 개발, 훈련수당 등

- 자동차 부품기업 정규직 입사자(청년 및 특화교육 수료자) **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** 및 **일자리도약장려금**** 우대 지원

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** 지원요건: 만 35세이상,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0개월

- 자동차 부품기업 신규 입사자 대상 **직장 적응 프로그램*** 운영 지원

* 기초소양, 노동관계법, 공통 직무교육, 지역인식(지역정착 유도) 등

2 농업: <주요대상> 안동·영주·문경·의성 등 농업 중심 지역 농가

❖ 道内 농업 중심지인 북부권 8개 시·군(안동·영주·문경·의성·청송·영양·예천·봉화)은 **인구감소지역**으로, 시·군 지역내 인력으로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곤란

- ‘**농촌인력중개센터**’, 「**都-農 상생일자리 사업**」을 통해 도시 유희인력 등을 일손 부족 농가로 연계, 교통비·숙박비 등 지원

- 他지역 청년의 유입 유도를 위한 **워킹홀리데이 사업*** 실시

* 지역 거주 체험 및 농업·관광업 등 단기 일자리 참여, 정착지원금 최대 160만원

3 반도체 부품: <주요대상> 구미 국가산단 입주 반도체 소부장 업체

❖ 구미산단에 집적되어 있으며 **낮은 임금** 및 **기술인력 부족**으로 구인난 지속, 특히,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(’23.7월) 등에 따라 향후 인력 수요 증가 예상

- 반도체 소부장 기업 정규직 입사자 **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* 및 **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

- 구인난 기업 맞춤형 **양성훈련** 실시, **훈련수당** 우대 지원

① **뿌리산업**: <주요대상> 표면처리·금형·소성가공 분야 소규모 뿌리기업

❖ 달서구·달성군 산단 內 표면처리·금형·소성가공 기업 비중(86.7%)이 높으며 대부분 50인 미만(98.4%), 낮은 임금 및 낙후된 근무환경으로 인력수급 취약

- 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 대상 **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** 및 **일자리도약장려금**** 우대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 유도
 - 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 - ** 지원요건: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,200만원
- ‘**뿌리산업 도약센터**’ 설립, 지역 특성에 맞는 **일자리 매칭** 지원
 - * 뿌리산업 구직자 발굴, 취업 상담 컨설팅,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
-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**교통비·숙소**(월세 등) 지원 등 근로자 생활편의 제고 및 뿌리기업 재직자 **종합건강검진** 지원

② **보건복지업**: <주요대상>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, 특히 노인요양시설

❖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(19%, 전국평균 18.4%) 노인돌봄 수요가 급증*하고 있으나,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돌봄인력 부족

* 장기요양기관: ('18) 1,103개 → ('22)1,397개(27% 증가)

- 중장년 요양보호사 신규채용 노인요양시설에 **일자리도약장려금*** 우대 지원, 일정기간 **고용유지**시 **인센티브** 추가 지원
 - * 지원요건: 만 40세 이상,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급수준: 최대 1,000만원
- ‘**요양보호사 승급제**’ 참여시설 대상 **인센티브*** 지원 강화
 - * (선임보호사) 월 15만원 → 월 25만원, (참여시설) 미지급 → 월 10만원
- 감정노동으로 심리적 불안감·우울감에 시달리는 **요양보호사** 대상 **전문 심리상담 서비스** 제공 지원

③ **반도체 부품**: <주요대상> 로봇·ABB 등 신산업 관련 반도체 장비·센서업체

❖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*하는 5대 신사업(로봇·ABB**·반도체·모빌리티·헬스케어)의 기반산업으로, 인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임금격차 등으로 **인력유출**

* 센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,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, IT 기술 집적지 조성 등

** ABB :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(Big data), 블록체인(Blockchain)

- 반도체 부품업체 구직자 대상 **채용 확정형 기업 현장훈련** 실시 및 **훈련수당** 우대 지원
- 반도체 부품업체 정규직 입사자 대상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및 **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

1 숙박음식업: <주요대상> 호텔·콘도·테마파크·전세버스 등 중소 관광기업

❖ 중국 단체관광 재개 등으로 인력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, **취약한 접근성** (서귀포·읍·면 다수 분포), **낮은 임금**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 곤란

* 외국인 단체관광객 수('23.7월 누계): 30.3만명(전년동기 대비 889%) 증가

- 근로시간 단축·유연화 지원 강화*, 원거리 출퇴근자 대상 교통비·주거비(월세 등) 지원을 통해 외곽지 근무 편의성 제고

*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→ 월 60만원, 교통비(월 10만원)

- 관광기업 정규직 입사자 대상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 및 정규직 채용 관광기업에 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

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** 지원대상: 만 18세~49세,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년

- 외국인 응대 관광기업 구직자 대상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, 훈련수당 우대 및 취업장려금 지급

2 도소매업: <주요대상> 면세점·6차산업 인증업체 등 소규모 유통업체

❖ (면세업) 엔데믹 이후 관광 재개로 인력수요가 증가, **낮은 임금**으로 취업 기피 (6차산업) 대부분 외곽 지역에 입지하여 **이동·취약한 주거환경**으로 인력난

- 면세점·6차산업 인증업체 정규직 입사자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 및 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

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** 지원대상: 만 18세~49세,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년

- 면세사업장 대상 근로시간 단축·유연화 지원 강화

*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→ 월 60만원, 교통비(월 10만원)

- 6차산업 인증업체 원거리 출퇴근자 대상 교통비·주거비 지원

① **부리산업**: <주요대상> 자동차·항공·방산·원전 관련 영세 부리기업

❖ 인구유출·고령화로 노동력 감소, 읍면 지역 공단·산단에 집적되어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낮은 임금, 열악한 근무환경, 출퇴근 애로

- 부리기업 정규직 입사자 **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** 및 **일자리 도약장려금**** 우대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 유도

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** 지원요건: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,200만원

- ‘**부리산업 도약센터**’ 설립, 지역 특성에 맞는 **일자리 매칭** 지원

* 부리산업 구직자 발굴, 부리기업 DB 구축,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

- **휴게공간** 확보 지원, **화장실·샤워실** 등 **공동이용시설** 개선 및 **작업복 세탁**(수거 → 세탁 → 배송) 지원

- **통근버스** 운행 지원 및 타지역 유입 근로자 **숙소** 지원(월세 등)

② **숙박음식업**: <주요대상>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·MICE 사업체

❖ 코로나 이후 **관광 회복**, 산청향노화엑스포(9~10월), 고성공룡세계엑스포(9~10월),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관광분야 인력 수요 급증

- 관광·MICE* 구직자 대상 기업 수요 맞춤형 **채용 연계형 교육** 확대, **훈련수당 우대** 등을 통해 실무 인력 양성

* 여행업, 호텔업, 면세점업, 전시·국제회의업, 유원시설

- 관광·MICE 분야 정규직 입사자 대상 **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* 및 **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

- 타지역 유입 근로자 대상 **주거안정비** 또는 **교통비** 지원

③ **조선업**: <주요대상> 창원·통영·거제·고성 등 조선업 밀집지역 협력업체

❖ 「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」(‘23.3월) 추진 후 구인난이 완화되었으나, **수주 증가**로 인력난 지속되는 한편, 낮은 임금 등으로 **잡은 이·전직**

- 조선업 협력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**공제사업** 실시
(근로자·기업(원청)·지자체·정부)

-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의 경우 **일자리도약장려금** 추가 지원*

* (현행) 사업주, 월 100만원 최대 1년 → (추가) 근로자(만 35~49세), 월 30만원 최대 6개월

1 의료정밀과학업: <주요대상> 소규모 물질검사·측정·분석기구 제조업체

❖ 업종 특성상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전국 단위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나, 대부분 영세기업(10인 미만 81%)으로 낮은 임금, 정주지원 한계로 인력난

○ 기업 R&D 조직을 활용*, 청년 대상 기업 맞춤형 OJT 훈련 확대

* 전체 기업의 80.1%가 기업부설연구소, 기술개발전담부서 보유

○ 의료정밀과학 기업 정규직 입사자 대상 빈일자리 청년취업
지원금* 및 일자리도약장려금** 우대 지원

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** 지원요건: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,20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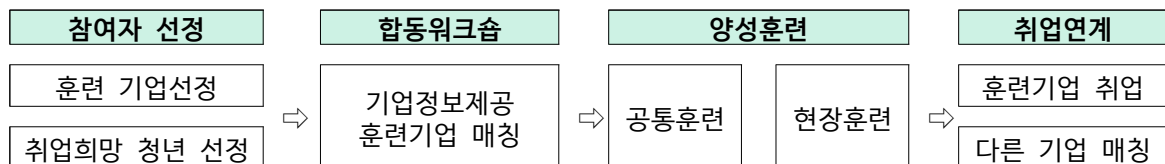
○ he지역 거주자 주거비(월세 등)·교통비 지원, 정주 부담 완화

2 반도체 부품: <주요대상> 소재·소자·모듈 제조업체 및 SW 공급 업체

❖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으로 수도권 기업과의 임금격차로 지역 인재 유출, 특히, 지역기업에서 2~3년 재직 후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

○ 반도체 관련 기업 취업희망 청년 대상 채용확정형 기업 현장
훈련 실시, 훈련기업 선택부터 취업까지 체계적 지원

〈채용확정형 기업현장훈련 프로세스〉



○ 반도체 관련 기업 정규직 입사자 대상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
우대 지원*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

* 지원대상: 만 18세~39세, 지원수준: 취업 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○ 반도체 관련 기업 신규 입사 청년 대상 직장적응 교육 실시

울산

지원업종 조선업 · 뿌리산업

1 조선업: <주요대상> 미포산단 입주 조선업 사내·사외협력사

❖ 「조선업 일자리도약센터」 운영, 교육훈련 확대 등으로 인력난 완화 추세이나,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현장 근무 인력 수급 애로

- 조선업 협력업체 신규 취업자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지원 및 재직자 대상 **공제사업** 실시
- 울산·미포국가산단을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, 도로폭 확대,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등 **산단환경 개선 추진**(~'27년)

2 뿌리산업: <주요대상> 3D 프린팅 등 자동차·조선업 관련 소규모 뿌리기업

❖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(3개→5개)로 기업 경쟁력 강화, 근무환경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, **청년층 유출**, 낮은 임금으로 만성적 인력난 호소

- '뿌리기업 **잡매칭센터**' 운영 지원, 뿌리산업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
- 뿌리기업 입사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지원

세종

지원업종 뿌리산업 · 전문과학기술업

1 뿌리산업: <주요대상> 기계장비·표면처리·용접 등 자동차 산업 3차 협력사

❖ 명지·전의 등 주거·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외곽 산단 내 영세기업 다, 낮은 임금,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한 신규 입직 인력 감소로 인력난 지속

- 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 **빈일자리 취업지원금** 지원
- **통근버스** 운행 및 he지역 유입 근로자 **주거비**(월세 등) 지원

2 전문과학기술업: <주요대상> 건축설계·미디어 제작 등 전문서비스 제공 업체

❖ 행정수도 조성에 따른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, 국가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전문서비스 수요 증가, 지역 내 **인력양성 인프라 부족***으로 **기술인력** 부족

* 대학교(3개), 전문대학(1개), 직업계고(3개)

- **유연근무제** 도입·활용 지원 강화 및 주거비(월세 등)·교통비 지원을 통한 he지역 인력 지역 내 유입·정착 촉진
- 전문서비스 업체 입사자에 **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* 우대

1 숙박음식업: <주요대상>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·MICE 사업체

❖ 코로나 이후 관광·전시행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30 세계박람회 등 관광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난 지속

- 관광·MICE 분야 전공 대학생·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직무 체험 및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, 청년 유입 유도
- 관광·MICE 정규직 입사자 대상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지원*
* 지원대상: 만 35세 이상, 지원수준: 취업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
2 뿌리산업: <주요대상> 금속가공·기계장비 등 영세 뿌리기업

❖ 소규모 영세 업체가 대부분으로 낮은 임금,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아 현장 인력 고령화 및 만성적 인력난 문제

- 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지원 및 뿌리기업에 일자리도약장려금* 우대 지원
* 지원대상: 최저임금 120% 이상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년
- 고령자 고용유지 뿌리기업에 계속고용장려금* 우대 지원
* (현행) 월 30만원·최대 2년 → (우대) 월 50만원·최대 1년
- 통근버스 운행 및 타지역 유입 근로자 숙소 지원(월세 등)을 통해 근로자 생활편의 개선

3 조선업: <주요대상> 조선업 협력업체, 특히 사외 기자재 사업체

❖ 조선업 인력양성 확대, 일자리 매칭 강화 등에 따라 구인난 일부 완화, 단, 조선 3社 대규모 채용시 숙련인력 이탈 등 인력난 우려

- 조선·기자재 정규직 입사자 대상 일자리도약장려금* 우대 및 빈일자리 취업지원금* 지원
* 지원대상: 만 35세~만49세, 최저임금 120% 이상, 지원수준: 월 100만원, 최대 1년
** 지원대상: 만 35세 이상, 지원수준: 취업후 6·12개월 각 150만원
- 쾌적한 휴게공간 확보, 화장실·샤워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

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(Track2)

□ 지자체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을 「메뉴판」 형식으로 각 지자체 배포

○ 각 지자체는 메뉴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, 지원 요청
→ 정책 취지 및 빈일자리 심각도 등을 고려, 지원대상 선정·추진

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메뉴판



지역 산업단지 등 환경개선

■ 노후산단 재개발 국토부

대상 산단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* 노후산단 인프라 재개발 대상 산단을 선정하여,
도로·주차장·공원 등 확충

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식품부

기숙사 건립을 확대('23년 10개소→'24년 20개소, 누계)하고,
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시 빈일자리 수준 고려

■ 산단 아름다운 거리 산업부

대상 산단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* 지역산단 내 스마트쉼터 등 생활편의기능 추가한
'아름다운 거리' 조성 추진 중

■ 산단 청년문화센터 산업부

대상 산단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* 지역산단 내 공연장·도서관·체육시설·편의점 등과 함께
업무지원 기능이 융합된 센터 구축

■ 공장리뉴얼 산업부

산단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공장리뉴얼 지원을 신설('24년 150개)하고, 대상 기업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

지역기업 근로조건 개선

■ 환경산업체 근로환경개선 환경부

환경분야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시
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(현재 5개 항목)에 반영

■ 외식업체육성자금 농식품부

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장별 컨설팅 및
노후가스·환기 설비 교체 및 개보수 지원,
대상 기업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 반영

■ 스마트공장 중기부

스마트공장 보급 대상을 '24년 1,000개로
확대('23년 783개)하고, 스마트 공장 대상 기업
선정시 빈일자리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

■ 인재 연수원 확충 중기부

중소기업 근로자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
복합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, 교육과정 개설시
지역별 빈일자리 수준을 반영

■ 상생협력 공제사업 중기부

중소기업 공제사업에 대해 지자체, 대기업 등이 기업지원금을 납입하고, 대상 기업 선정시 빈일자리 수준 반영



지역투자 자원 활용

■ 지역소멸기금 행안부

지자체 기금사업과 지역의 빈일자리 해소
연관사업 연계 강화

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기재부

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빈일자리
해소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화 지원
(예: 컨설팅, 펀드 신청 안내 등)

2.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

❖ 인력 매칭 효율화를 위해 **지역 단위 고용서비스**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, 지역별 **직업훈련** 및 **근로조건 개선** 지원 지속 강화

1 지역 거점별 고용서비스 혁신

- (**거점별 서비스**) 전국 고용센터 통해 신속취업지원TF,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본격 지원 → **빈일자리 핵심기업 5,000개** 선정, 인력난 1:1 지원
 - 고용복지+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를 한곳에서 **원스톱**으로 제공하는 **통합네트워크 2개소** 추가(현재 4개소 구축중)
 - 지역 내의 자립준비청년·위기가구 등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하는 **지역 단위 협업모델** 지속 발굴·확산
 - * (지자체)서울·전북·경남 등 14곳, (기관) 신용보증재단·경찰서·서민금융진흥원 등 6곳

2 지역별 직업훈련 강화

- (**훈련 프로그램**) 산업현장 수요 기반 커리큘럼 구성, **채용예정자** 훈련 프로그램 지원 올해대비 **2만명 확대**(‘23년 3만명 → ‘24년 5만명)
 - **폴리텍 직업훈련**은 지역수요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편·확충하고, 대상인원도 지속 확대(‘24년 1.4만명 훈련 목표)
 - **중견기업-대학 협업 연구실** 인력양성 지원(혁신 얼라이언스) 지속 확대
- (**인프라**) 대·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20개 신설* 추진
 - * 첨단산업분야 15개 확대, 산업전환분야 5개 확대

3 근로조건 지원 강화

- (**유연근무 지원**)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 지원 확대*,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**
 - * 현재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지원(최대 월 50) → 실근로시간 단축도 지원(월 30만원)
 - **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(50개소) → 시차선택근무 근태관리시스템 지원 추가(‘24년 850개소)
- (**근로복지 지원**) 원청이 출연하여 협력사 근로복지를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하고, 2·3차 협력사 대상 「상생연대 형성지원」 신설
 - * (공동근로복지기금 : 1차 협력사 지원) 상생협약 체결시 정부 매칭 한도 10→20억원으로 확대
 - (상생연대 형성지원 : 2·3차 협력사 지원) 원청 노사 출연 시 매칭 보좌(총 50억원)

3.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

❖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**비자체계**를 개선하고, **필요 외국인력 도입 쿼터**를 확대

○ 외국인력 정착 지원 등 **정주여건 개선** 및 **사회통합** 지원도 병행

1 지역특화비자 확대 등 우수외국인재 지역 정주 유도

- ① **(지역특화비자)**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인재, 동포 정착 확대를 위해 **지역특화비자 쿼터** 확대 검토(~12월)
 - 우수인재의 지역 장기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**단계적 비자 체계** 구축
 - 우수인재·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주거·교육·취업 연계 강화 등 사업수행노력에 따라 **쿼터배분** 검토
- ② **(유학생)** 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결 위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 교육 이수시 체류자격 변경(E-7) 허용 추진(~12월)

2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단순외국인력(E-9) 등 외국인력 도입 확대

- ① **(단순외국인력(E-9))** 적시에 충분한 공급을 위해 차년도 쿼터 조기 결정 및 확대, 지역배정 유도(예: 인력부족지역 외국인력 우선배정 검토)
- ② **(숙련기능인력(E-7-4))** 양질의 숙련인력의 지역 배정을 위해 지역정착 가점 부여, 지자체 추천 쿼터* 마련
 - *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(K-point E74) 시행(법무부, 9.25일)
- ③ **(계절근로자(E-8))** 지역 수요에 대응하여 계절근로자(E-8) 쿼터 조기 결정(~12월),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* 추진
 - * ('23) 19개소, 6억원 → ('24 정부안) 70개소, 34억원 / (운영범위) 타 사군까지 확대('23.8.~)
 -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·관리하여 단기 인력 필요 농가에 일(日) 단위 공급

3 외국인력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

- ① **(정주여건)** 단순외국인력(E-9)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시, 공공기숙사 적극 도입 지자체의 사업장에 **선발 가점 부여** 등 우대방안 마련
- ② **(사회통합)** 외국인력의 원활한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어, 한국문화 교육 등 **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*** 확대(6.5천명)
 - * 사회통합교육(한국어와 한국문화, 한국사회 이해)시 강사가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제공

V. 향후 추진계획

- **(후속조치)**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(Track1)는 '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세부지원 내용에 대한 지자체 협의 실시*(~'23.12월)
 - * 지자체 추가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일부 변경 가능
-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(Track2)는 개별 사업별 여건에 맞추어 대상 선정기준에 반영('24년)
- 지자체 공모사업은 동 안건을 바탕으로 정식 공모절차를 거쳐 지자체별 예산 배분 및 사업 추진*
 - * 공모사업 접수('23.12월) → 심사·선정('24.1월) → 사업 개시('24.2월~)
- **(실적점검)** 일자리전담반(TF) 통해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및 필요시 추가과제 발굴 추진